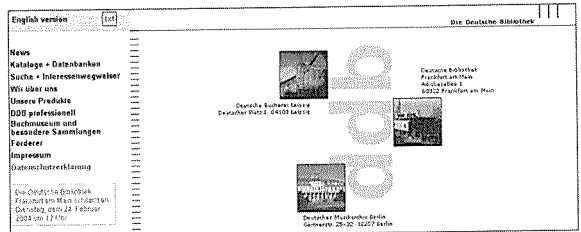


* 해외도서관 사정

독일도서관의 상호협력 시스템



(<http://www.ddb.de>, 독일국립도서관)



조진숙*

독일의 도서관은 그 기능에 따라 공공도서관과 학술도서관으로 구분되는데 공공도서관은 그 지역 사회의 주민을 위한 정치 경제 문화 일반에 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정보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도서관으로 시립 및 구립도서관, 그리고 이들 도서관에 부속되어 있는 청소년도서관과 음악도서관등이 이에 속한다. 학술도서관은 주로 연구 목적을 위한 학술 자료를 소장하여 학자나 연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국립 및 주립도서관이나 각 대학도서관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술도서관 또한 모든 시민들에게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의 분류와 상관없이 당연히 “공공(公共)”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독일의 모든 대학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의 대학이기에 이에 소속된 대학도서관들은 그 대학 관계인 뿐만 아니라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시민과 일정 기간의 체류 기간이 허용된 외국인에게까지 정보 열람 및 대출서비스가 제공되는 점에서 일반적 정보 욕구와 전문적 정보욕구 사이를 메꾸주는 수준 높은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겠다. 이렇듯 독일의 도서관들은 학술성에 중심을 둔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국립 및 주립도서관이나 각 대학도서관들이 지역적 편중 없이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정보의 중앙역들이 되고, 대중성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규모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지역도서관들이 정보의 지방역들이 되어 커다란 정보의 철도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성에 충실하되 그러한 전문적 정보의 보편적 공유를 추구하는 공공성 개념에 충실한 독일 도서관 또한 정보자료의 폭발적 증가라는 현대적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사회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정보에 대한 욕구는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 이에 부응하기 위한 정보 서비스 또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반면, 정보 자료의 폭발적인 증가 추세는 사실상 각각의 개별 도서관이 국내외에서 간행되고 있는 모든 정보 자료를 수집하여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보 제공 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이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간의 협력 활동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독일에는 도서관간 자원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을 위하여 지역 및 전국단위로 도서관 협력망이 구축되어 이용자들에게 정보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협력 활동으로 국립 및 주립도서관이나 각 대학도서관들이 참여하여 시행하고 있는 “문헌분담수서시스템” (Überregionale Literaturversorgung)과 “전국상호대차제도” (Fernleihverkehr)를 들 수 있겠다.

문헌분담수서시스템 (Überregionale Literaturversorgung)

독일 도서관의 “문헌분담수서시스템”은 제2차 세계 대전후인 1949년에 구상이 되어 현재까지 시행이 되어오고 있다. 당시 독일은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도서관의 많은 장서들이 손실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독일의 학술

* 베를린국립도서관 한국담당사서, jin-suk.cho@sbb.spk-berlin.de


진흥을 위해 필요로 하는 문헌들을 단시일 내에 수집 재정비해야 할 절실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를 위해서 서독¹⁾의 도서관계에서는 학술문헌 분담수서시스템 방안을 구상하게 된다. 즉 전문성과 보편성이라는 도서관의 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술 연구에 근간이 되는 기본 학술 자료들은 독일 내 16개 주를 중심으로 구성된 모든 지역권 자체 내에서 협력 수집하여 동일한 기본 정보 인프라를 구성하되, 기상학이나 지질학과 같은 특수 학문 분야나 아시아나 동유럽 등 특정 지역에 관한 국내의 전문 학술 연구자료는 한 특정 도서관이 전담하여 수집하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전문화된 특수자료라 하더라도 적어도 독일의 한 도서관에서는 이 자료를 소장하고 있어 “전국상호대차제도”를 통해 타 지역의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학술 자료 수집 분야를 120여 개의 분야로 세분화하여 베를린 국립 도서관, 뮌헨 국립 도서관 및 20여 개의 주 도서관이나 대학 도서관, 특수 도서관과 전문 도서관등 총 60여 개의 학술도서관이 참여하여 분담한 특정 분야의 국내외 중요 학술자료를 가능한 한 완전하게 수집함으로써 독일 전체적으로는 모든 학문 분야에 걸친 중요 학술자료를 소장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들 도서관들은 담당 분야의 학술자료 수집 시 우리의 학술진흥재단에 상응하는 “독일연구재단”(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으로부터 상당 부분 재정 지원을 받는다.

전국상호대차제도 (Fernleihverkehr)

위와 같이 학술연구를 위해 각 도서관이 분담 수집한 소장 자료는 독일의 학술도서관들이 가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호대차제도를 통해서 상호 공유 된다. 즉 어느 특정 지역의 도서관이 이용자가 요구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지 않을 경우 “전국상호대차제도”를 통하여 타 도서관에 의뢰하여 이용자에게 정보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전국상호대차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독일 전지역을 10개의 대차 지역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권마다 지역별 종합목록이 작성되어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중심도서관이 각각 있어 다른 지역에서 보내진 상호대차신청서를 담당하여 처리한다. 지역별 중심도서관에서는 자체 지역권 산하 도서관에 신청자료가 있을 경우 해당 도서관으로 상호대차신청서를 보내며 해당 도서관에서 직접 이용자에게로 자료를 서비스하게 된다. 만약 그 지역 도서관에 신청자료가 없을 경우 신청자료의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타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 신청서를 보내 자료의 소장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예를 들어 독일의 북쪽 지방인 함부르크에 살고 있는 한 이용자가 그 지역의 대학도서관에서 한국관계 자료를 찾겠다고 해보자. 그 대학도서관에 찾고자 하는 자료가 없을 경우 이용자는 우선 함부르크가 속한 지역권에 있는 타 도서관의 소장여부를 검색하여 해당 자료를 신청하여 이용 할 수 있으며, 찾고자하는 자료가 그 지역권 도서관 전체에도 없을 경우에는 독일 “문헌분담수서시스템”에 의해 한국학 분야의 전문 수집 도서관으로 특화된 베를린 국립도서관으로 “전국상호대차제도”를 통해 자료를 신청하게 된다.

만일 베를린 국립도서관에도 신청 자료가 없을 때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 외국으로까지 자료 신청을 하게 된다. 최근에는 각 주마다 또는 여러 주가 연합하여 구축한 지역권별 공동목록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으로 연계되어 타 지역 해당도서관에 대한 대부분의 자료검색 및 대출이 타지역 중심도서관의 매개 없이도 직접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신청한 자료 중 귀중본이나 신문과 같이 규격이 큰 자료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학술 자료는 단행본 일 경우 약 한달 간, 정기 간행물일 경우 2주간 대출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복사 서비스를 시행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독일 도서관들은 학술 진흥을 위한 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해 특화와 공유의 조화를 학술도서관간의 긴밀한 협력망 구축을 통해 이루어 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함께 나눈다”는 공공(公共)성의 실현은 독일 도서관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공공(公共)성의 정신 없이는 아마도 불가능했을 것이라 보여진다. 지역사회의 15,000여개 공공도서관들로부터 장서량 1,000만권을 넘는 베를린 국립도서관, 그리고 평균 장서량 150만권 수준의 80여개 대학도서관들에 이르기까지, 독일 도서관의 모든 정보는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필요한 누구에게나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1) 동서독 통일 후에는 구 동독 지역의 학술 도서관들도 “문헌분담수서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